

아이좋아 경남교육

2020 02 vol.37



'엄마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진주 이반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박연옥 선생님



연극으로 한 계단 성장하는
함양 서상초등학교



「2019 대한민국 인재상」에
빛나는 미래의 인재!
창원과학고등학교 이태형 학생



매서운 바람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걷는 계절입니다.

겨울의 끝인
2월에 접어들었으니
코끝 시린 추위도
오래지 않아 꺾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먼 데서
봄이 오고 있을 테니까요.

2월의 달력이 끝나갈 즈음엔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도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나무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도
저마다 마음이 바빠질 겁니다.

어떤 시작을 준비하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2월을 응원합니다.

CONTENTS

FEBRUARY 2020



21

경남교육 Special

- 06 요즘 아이
요즘 아이 방학 생활
- 11 요즘 아이 앙케트
요즘 아이 '방학 생활' 별별 앙케트
- 12 요즘 아이 & 옛날 아이
옛날 아이 방학은 어땠을까?



32



06

경남교육 Star

- 14 별별 꿈 이야기
'2019 대한민국 인재상'에 빛나는 미래의 인재!
- 창원과학고등학교 이태형 학생
- 18 별난 선생님
'엄마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 진주 이반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박연옥 선생님
- 22 별난 학교
연극으로 한 계단 성장하는
- 함양 서상초등학교
- 26 별난 동아리
'독립운동의 속삭임'을 출판한
- 창원 구산중학교 '역사에서(愛書)' 동아리



17

경남교육 Smile

- 42 가족과 함께 힐링&필링
- 46 영화로 보는 교육이야기
- 50 독자칼럼
- 52 다독다독
- 54 토박이말 나들이

정보 & 뉴스

- 56 경남교육 마당
- 62 도정소식 - 기사교류 <경남공감>
- 64 교육위원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42

아이좋아 경남교육

2020 02 vol.37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일 2020년 2월 1일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055-278-1783
 편집인 홍보담당관 허재영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박미희, 주무관 이영미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브레인



2월호 표지

방학이 좋은 이유? 말해 뭐해! 요즘 아이 방학생활

학교의 새해는 3월에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3월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을 정리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마음이 더해진 겨울방학은 여름방학과는 다른 온도로 긴장과 설렘이 높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던 “이번 방학이 제일 중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처럼,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다가오는 방학이 제일 소중하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기대하는 방학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말이다. 누군가에게 희망과 힐링이 되고, 누군가에게 재충전과 선물이 되는 시간. 창원동중학교 1학년 황주원·정지윤·정주영, 창원동중학교 3학년 이성빈·이준희 학생을 만나 요즘 아이들의 방학생활을 들어보았다.



방학은 [재충전] 이다
이성빈 (17세)




방학은 [힐링] 이다
이준희 (17세)



방학은 [선물] 이다
정지윤 (15세)




방학은 [희망] 이다
정주영 (15세)




방학은 [식물] 이다
황주원 (15세)





#01

방학이 선물해주는 시간

창원 동중학교 근처의 한 카페.
방학 중이라 평일 오후 시간에 편하게 아이들을 만났다.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따로 없었지만,
대답이 뻔히 예상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방학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원> 음... 제일 좋은 건 역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요.
학교 다닐 때는 밤 늦게까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일
찍 자야 했거든요.

<지윤> 저는 취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

<준희>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
어서 좋아요.

<성빈>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자유가
없다고 해야 하나. 방학 때는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아요.

<주영> 저는 숙제 안 해도 되고 시험 안 쳐도 되는 거요. 다들
이 이유가 제일 큰 거 아닌가?

주영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의 웃음이 크게 터졌다.



#02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아 두근두근 방학계획

새해와 방학의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점,
그 계획들이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점 아닐까?
그럼에도 매번 이번 계획만큼은 꼭 이뤄야지 다짐을 하게
된다. 테이블에 모여 앉아 방학 계획표를 그리던
아이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말하는 방학 계획을 들어보았다.

<주영> 제일 중요한 계획은 다음 학년 예습이예요. 특히 수학
이랑 영어 과목을 하루 3~4시간 정도 공부하려고요.
지난 학기는 자유학기제여서 시험이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시험이 늘어나니까 부담돼요.

<주원> 저도 수학 선행 학습이 목표라 요즘 학원에 다니고 있
어요. 저는 한 군데밖에 다니지 않는데, 친구들 이야기
를 들어보면 방학 땐 학기 중보다 학원을 2~3군데 더
다녀야 한대요. 방학은 놀라고 있는 건데 더 많은 공부
를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지윤>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원하는 곡을 완벽하
게 연주해보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평소엔 잘 만나
지 못했던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날 거예요.

<준희> 저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요. 하루 3~4시간 정도
헬스를 하고, 산악자전거도 자주 탈 계획입니다.

<성빈> 이번 방학 땐 독서를 열심히 해보려고요. 책을 읽으면
서 어휘력이 늘리고,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빠르
게 풀려면 읽는 속도도 빨라야 하니까 연습도 할 겸.



#03

방학을 맞는 마음

이번 방학이 지나면 지윤·주영·주원은 중학교 2학년,
성빈·준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다.
중학교 마지막 방학을 보내는 성빈, 준희의 마음은 어떨까.

<성빈> 전에는 '방학 때는 놀아야지' 하는 생각이 컸어요. 그런
데 중 3 겨울방학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
는 시간이라 부담감이 달라요.

<준희> 맞아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중학교 생활을 정리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아쉬워요.

그렇다면 중학교 첫 겨울방학을 맞은 지윤, 주영, 주원
이의 마음은 어떨까.

<주영> 초등학교 방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방학 숙제
가 없어요!

<주원> 대신 공부 시간이 늘어났어요.

<지윤> 맞아요. 방학 때 공부하는 친구랑 안 하는 친구랑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주영> 중학교 방학은 공부의 연장!



#04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시간과 돈에 제약이 없다면,
이번 방학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까?

<주원> 음... 친구들과 멀리 놀러 가보고 싶어요. 북한 같은 곳?
(웃음) 그리고 어학연수도 가보고 싶어요. 이번에 친구
들 몇 명이 필리핀으로 갔거든요.

<주영> 과학이 더 발전해서 지금보다 비행기 속도가 더 빨라진
다면 며칠 만에 세계 일주 해보고 싶어요.

<지윤>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 보러 가기?

<성빈> 친구들과 여행! 국내 유명한 관광지 여러 곳을 다녀보고
싶어요.

<준희> 저는 친구들과 해외 여행. 베트남 같은 곳이에요!

#05

우리에게 방학은 []이다

방학의 기억을 떠올려본다.
밀린 방학숙제와 벼락치기로 쓰던 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돌이켜보면 두 번의 방학이 있어서
여름과 겨울 두 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어른이 되면 방학을 누리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아이들의 방학이 충분히 즐겁고 여유롭길 바란다.
그런 마음을 담아 다섯 명의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여러분에게 방학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영> 희망이다. 그냥 너무 좋으니까요.

<주원> 식물이다. 계속 할 게 자라나니까.

<성빈> 재충전이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 같아요.

<준희> 힐링이다. 지친 학교 생활을 위로해주는 시간!

<지윤> 선물이다. 방학은 행복을 선물해줘요.



요즘 아이 '방학생활' 별별 앙케트

출처 : naver tv '세대별 방학탐구 랭킹' 방구랭킹

방학 때 이루고 싶은 목표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공동 1위

- | | |
|--------------------|--------------------|
| 예습하며 새 학기 준비하기 | 예습하며 새 학기 준비하기 |
| 2위 평소 못했던 문화생활 즐기기 | 2위 평소 못했던 문화생활 즐기기 |
| 3위 체력 키우기 | 3위 키 크기, 다이어트 하기 |
| 4위 키 크기, 다이어트 하기 | 4위 나를 성장시키기 |
| 5위 방학계획표 지키기 | 5위 친구들과 추억 쌓기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위

- 눈싸움 하기
- 스키 타기
 - 취미생활 하기
 - 가족여행 가기
 - 친구랑 하루종일 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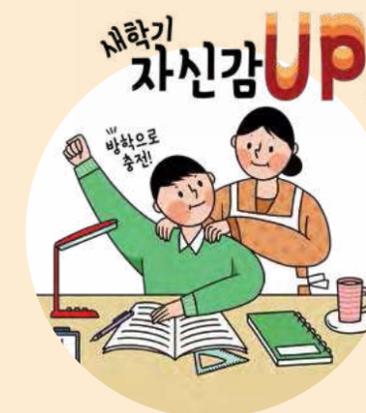
1위

- 해외여행 가기
- 아무것도 안 하고 폭 쉬기
 - 자기 개발하기
 - 친구들이랑 놀기
 - 웹툰이나 영화 정주행하기

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은?



방학 때 해야 하는 일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위

- 방학숙제/ 공부하기
- 자기 개발하기
 - 캠핑/여행 가기
 - 학원 가기
 - 휴대폰 사용 줄이기

1위

- 부족한 공부하기
- 다이어트 하기
 - 아르바이트 하기
 - 봉사활동 하기
 - 학원 가기



“학원으로 방학이 더 바빴던 기억이 나요.”

정소영 (34세)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방학이란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중학생이 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방학이 되면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다니는 학원을 조금 더 늘렸거든요. 진학에 있어서 학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날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렇게 방학을 못 즐겼을까 후회도 돼요.

옛날아이 방학은 어땠을까?

기성세대들은 요즘 아이들의 방학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옛날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방학은 학년별로 기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손다은 (30세)

저는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고등학생이 되면 방학숙제가 없는 대신 보충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잖아요? 그래서 방학이라는 기분이 별로 안 났어요. 그냥 빨리 마치는 기분? 방학은 그저 학업의 연장이란 생각이 들었고, 보충수업이 끝나도 공부에서 손을 놓을 수 없었죠. 하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학교를 가더라도 방학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학년별로 방학을 보내는 기분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행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혜미 (38세)

저는 방학하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릅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도 주말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 집은 여름방학만 되면 가족들과 다 함께 여행을 갔어요. 국내도 가고 국외도 가고. 보통 3박 4일 정도 다녀왔는데, 학기 중에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자녀가 방학이 되면 이런 여행 같은 활동들을 꼭 이어나가고 싶어요.

“방학의 모든 추억은 하천에 있죠.”

이정기 (5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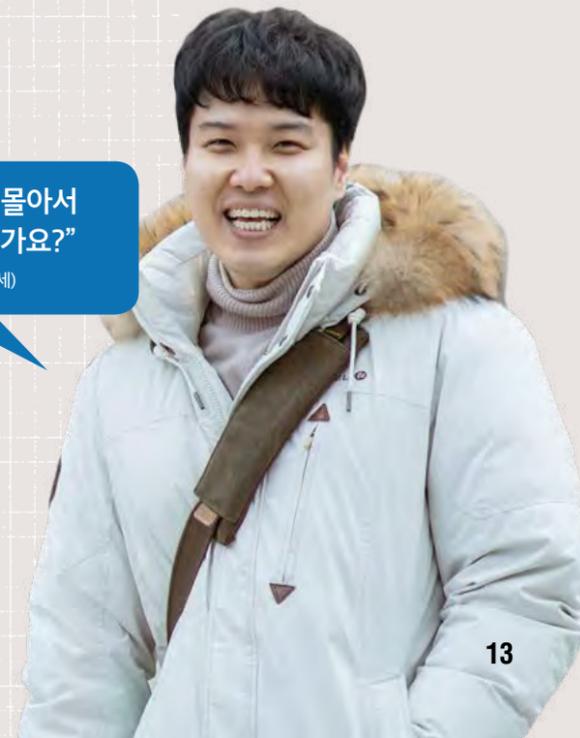


방학이면 뭐 늘 동네 친구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바로 동네에 있는 하천인데요. 여름이면 거기서 올챙이 잡고, 개구리 잡고 수영도 하고 수렵활동을 했죠. 겨울방학이면 또 똑같은 하천에 물이 얼어요. 그럼 구멍 만들어서 물고기 잡고, 그 위에서 썰매 타고 방학은 항상 그곳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방학의 모든 추억이 그 하천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숙제는 몰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무룡 (35세)

그저 노는 걸 좋아했던 아이라 방학식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학을 하면 동네 친구들과 아침부터 운동장에 모여서 공 차고 놀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는 방학에 숙제는 뒷전이고 그저 논다고 바빠서 개학이 두렵기도 했어요. 선생님에게 많이 혼났거든요. 방학 말미에 숙제를 몰아서 하는 것도 나름 추억이었습니다.



'2019 대한민국 인재상'에 빛나는 미래의 인재!

창원과학고등학교 이태형 학생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재상'. 뛰어난 재능과 도전정신, 사회 기여에 대한 의지 등 소양을 두루 갖춘 청년 우수 인재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9 대한민국 인재상'에 빛나는 경남지역 유일한 고교생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창원과학고등학교 2학년 이태형 학생이다. 앞으로 과학 재능을 살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태형이의 특별한 꿈 이야기를 들어봤다.

창의융합 인재교육 (STEAM R&E) 활동

세월호 사건을 보고 '물속에서 퍼지는 날개, 어뢰형 구멍 튜브' 연구

태형이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해양재난사고에서의 인명구조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무척 안타까웠다. 그래서 '물속에서 퍼지는 날개, 어뢰형 구멍 튜브'를 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몇 해 전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박사의 강연을 직접 들었을 때, 인상 깊었던 구조로봇에 대한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해양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대상자의 위치로 어뢰형 구멍 튜브나 구멍보트를 보내주고, 자동으로 퍼지게 프로그래밍된 구조장비예요. 구멍 튜브가 무거운 무게 때문에 실제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학교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 주셨고, 직접 신청서를 내서 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돼 연구를 진행했다.

“학교 친구들 중에 코딩 역량이 뛰어난 친구 등 팀원을 직접 꾸렸고,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학교 운동장에 커다란 수조를 만들어 놓고 하는 실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어뢰 속 구멍 튜브의 무게 균형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도중에 태풍이 오기도 해서 힘든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창원과학고등학교 동기인 팀원들과 협업하며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창의융합 인재교육 활동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과학적 역량을 인정받아 2018년에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창업 아이디어가 빛난 모의 창업

[2018년] 노인 영양 결핍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간식 판매 플랫폼'

태형이는 오랫동안 노인요양병원에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인 영양 결핍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간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주어진 세 끼 이외에는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잘 없더라고요. 유아 간식은 종류도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비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학교 동기 중에 마음 맞는 친구들과 팀을 꾸려 모의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간식을 소개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간식 판매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다.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노인 영양 결핍 문제를 사회에 알려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노인 간식 판매 플랫폼'은 '경남 과학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도지사상 수상, -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미래가치상을 수상했다.

“실제 창업을 해볼까를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업체와의 계약 등 관리하는 일이 학업과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창업활동, 스타트업도 해보고 싶어요.”

[2019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상현실(VR)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한정된 시각의 정보만 얻게 되잖아요. 여행도 쉽게 못하시고... 많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가상현실(VR)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클릭 한 번으로 해외의 관광 명소도 볼 수 있고,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VR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금전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고가의 VR 카메라 대신, 저렴하고 쉽게 VR 화면을 촬영할 수 있는 기구를 연구·제작했다. 이렇게 만든 VR 콘텐츠는 세계 각지 사람들과 서로 나눌 수 있게 플랫폼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성과 역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미래가치상을 수상했다.



66
소외돼 있는 약한 사람들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

평소에도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많다는 태형이. 태형이의 꿈은 어떤 모습일까?

“어릴 때는 농구선수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운동은 다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창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는 대한민국의 과학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문제점이나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태형이의 롤 모델은 컴퓨터 공학자로서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박사. 무엇보다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눠 사회에 공헌한 점이 존경스럽다.

“우리나라 이공계, 과학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많았는데, 정치에 입문해서는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박사님과 같이 보다 많은 과학·공학 인재들이 정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몫을 하고 싶다는 태형이. 그 포부와 꿈이 꼭 기특하다.

'2019 대한민국 인재상' - 큰 상을 받은 소감이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나? 싶기도 했는데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뛰어난 다른 수상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도 많았는데요. 학교 친구들과 당장 눈앞의 경쟁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소외돼 있는 약한 사람들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난 선생님

진주 이반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박연옥 선생님

‘엄마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놀이를 함께 하며, ‘오늘 점심은 무엇을 해 먹이지’ 고민한다. 또래 친구와 비슷하게 커 가고 있는지, 표현은 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늘 지켜보며 마음을 쓴다. 그리고 개선책을 찾는다. 일 때문에 며칠 아이들을 못 볼 때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이의 사진을 올려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본다. 아이들이 ‘엄마선생님’ 혹은 ‘선생님엄마’라고 부르는 박연옥 선생님의 하루. 진짜 엄마와 다르지 않은 시간들이다.

다문화가정 아이는 물론
엄마까지 돌보는 ‘엄마선생님’

진주 이반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박연옥 선생님은 2019년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하며 영광스럽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 ‘올해의 스승상’은 1, 2차 예심과 공적평가, 본선까지 네 번의 심사를 거친 뒤에 최종 선정되는 매우 까다로운 상이다. 박연옥 선생님은 33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살뜰히 돌보고, 특히 다문화가정을 보살피며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치원의 전체 원아는 6명. 이 중 4명이 다문화가정, 2명은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집’의 기준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셈이다. 또래 친구들보다 키도 작고, 말도 느린 아이. 친구와 자주 싸우는 아이. 그런 아이들의 생활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아이들의 부모가 보였다.

“한 아이는 유치원에 처음 왔을 때 다섯 살이었는데, 마치 두 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손발도 너무 작고 키도 작고... 그 너머를 들여다보면, 한국으로 시집와 아직 적응하지 못한 ‘엄마’가 있었어요. 멀리 타국에서 시집와 이렇다 할 한국어 교육도 못 받은 채 엄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아이들의 엄마까지 보살필 수밖에 없더라고요.”

1992년생 ‘어린 엄마’를 보며, 처음에는 딸 같은 마음에, 나중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선생님은 생각했다. 교육복지사를 찾아갔고, 지역 관계기관에 수없이 전화를 돌렸다. 스스로는 ‘징검다리 역할’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박연옥 선생님이 기꺼이 그 역할을 해준 덕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집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굉장히 열악한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선물해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보람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지역기관의 도움으로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는데… 비가 새고 바람이 들이치던 집에 단열재를 넣고, 아이들에게 책상과 의자를 선물해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 외에도 박연옥 선생님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나섰다. 모금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외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심리치료도 주선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1년을 보냈다.

또 작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8년째 ‘유치원 간 연계교육’도 주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진주 관내 동부지구 5개 학교 병설유치원 아이들을 모아 ‘협동교육과정’을 만든 것이다.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은 더 큰 사회를 경험하며 매년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다.

박연옥 선생님이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한 이후,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따뜻한 외투가 하나씩 생긴 것이다. 박연옥 선생님은 ‘올해의 스승상’ 상금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전교생 33명에게 브랜드 롱패딩을 선물했다. 옷을 선물하게 된 데는 다 사연이 있었다.

“원래는 상금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 다 같이 놀이공원을 갈까 했어요. 해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데, 한 아이가 어느 가족을 가리키며 “선생님, 저기 가정이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던 까닭에 ‘가족’ 대신 ‘가정’이라 표현한 듯하다.) 자기는 저렇게 해 본 적이 없으면서… 그 표정을 보는데 또 눈물이 왈칵 났죠. 그래서 부모님과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역시 어느 부모님은 일 때문에 못 오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니, 결국 롱패딩을 사주는 것으로 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왔어요.”



66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엄마의 나라에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싶어요.

99

33년 유치원교사 생활…

“아이들이 보고 싶어 출근해요”

박연옥 선생님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은 교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듯 보였다. 학교는 물론 집에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 아버지는 집에 찾아온 아이들을 위해 비싼 초를 켜주고, 엄마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아이들에게 먹였다. 딸에게는 “학용품 가져 써라”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학용품과 책을 아낌없이 사 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박연옥 선생님은 유치원 교사가 되었고, 그의 딸 역시 특수교사가 되어 ‘교사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딸이 주말에도 반 아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며 ‘너도 천생 교사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박연옥 선생님은 2020년에도 누구보다 바쁘게 살 예정이다. 얼마 전 베트남으로 문화지원 연수를 다녀온 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다.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엄마의 나라에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싶어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으려면 부모교육 역시 필수고,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무언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과는 지금처럼 웃으며 함께 살아야죠.”

박연옥
별난 선생님





연극으로 한 계단 성장하는 함양 서상초등학교

함양군 서상면의 작은 학교, 서상초등학교가 '제27회 전국어린이연극잔치'에서 최고상인 금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어린이연극잔치'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연극 경연대회로, 어린이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연출·출연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 서상초등학교는 경남 도내 치열한 예선을 거쳐 전국 8개 학교 중 한 곳으로 선발, <2019. 마니또 프로젝트>라는 작품으로 당당히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전교생 모두가 '연극배우'인 학교

서상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2명이다. 그리고 32명이 모두 연극배우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학교 특색교육으로 '연극교육'을 진행해온 덕분이다. 1~3학년, 4~6학년으로 반을 나눠 연극 작품을 매년 한 편씩 연습해, 연말 학예회 대신 연극제를 하는 방식이다. 6학년 학생의 경우 지금까지 6편의 작품을 소화한 셈이다.

"국어의 연극 단원, 체육의 표현활동 등 수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연극을 보다 일상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1년 동안 끊임없이 작품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졸업한 아이들도 자기 대사를 모두 기억하더라고요."  권태형 선생님(4~6학년 연극 총괄)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창의적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해 시작한 연극교육은 어느새 아이들에게 일상이 되었다. 한 편의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극본과 음향, 조명과 출연진의 합이 맞아야 하는 법.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협동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사는 사회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었다.



아이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냈더니 작품이 됐어요

이번 창작극 '2019. 마니또 프로젝트' 된다는 이야기로 극본은 연극 담당 교사인 권태형 선생님이 썼다. 교실에서 늘 부딪치는 두 친구가 '비밀친구 마니또'를 통해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권태형 선생님의 어릴 적 경험이 모티브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연극 분량이다. 대회에 오른 작품 대부분이 30~40분 안팎이었지만 '2019. 마니또 프로젝트'는 1시간. 학생 19명 모두를 무대에 출연시키고, 또 저마다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을 더하다보니, 초안에서 점차 분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 말도 잘 하지 않다가, 연습이 무르익자 "저 대사 더 많이 하고 싶어요."라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학생도 생겨났다. 이 기특한 변화에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극본은 초안의 두 배가 넘는, 34쪽짜리로 완성됐다.

“사실 분량이 길면 관객들이 집중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관객을 위한 연극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연극이었기 때문에 긴 분량을 고집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연극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니까요.” 권태형 선생님



연극 시간만 1시간이 넘다보니 주연이 해내야 할 몫도 많아졌다. 주연이 오롯이 소화해야 할 분량만 30분. 이 부담감을 즐거움으로 소화한 주인공은 박승룡(6학년·반장 '기수' 역), 조조(6학년·'현재' 역) 학생이다. 승룡이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배우를 꿈꾸며 재능을 발휘해 온 경우이고, 조조는 5학년 때까지는 줄곧 조연이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연기력을 드러내며 주목을 받은 경우다. 생애 첫 주연인데, 조조는 전국대회로 가기 전 경남 예선격인 제23회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으며 친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무대에는 강아지 '4견방'도 등장한다. 권태형 선생님이 '최고의 연기력'이라고 평가하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은 '2019. 마니또 프로젝트'의 이야기 흐름을 이끌어감과 동시에, 귀여움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역할을 했다.

“다같이 주말에도 연습하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서울에서 수상 후 앙코르 공연 때 한 번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추억이 됐어요.”

전수현 (5학년, 강아지 역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든 무대

반장, 선생님부터 강아지까지, 모든 배역은 교내 공개오디션을 통해 결정됐다. '하고 싶다'는 선호도를 1순위로 반영하고, 다음이 연기력. 주연보다는 귀여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친구, 엉덩이 흔드는 신이 싫어 차라리 대사를 많이 하겠다는 친구... 순수하고도 명확한 요청을 귀 기울여 들은 결과, '2019. 마니또 프로젝트'는 그해 '최고의 어린이연극'이 되었다.

여기에,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옥임 교장선생님, 무대 뒤에서 기꺼이 조명을 맡아주고, 함께 소품을 사러 뛰어다니던 동료 교사, 앞서 연극교육이라는 씨앗을 잘 뿌려둔 선배 교사들의 노력까지. 서상초등학교 구성원 모두가 충실한 스태프가 되어 작품을 완성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무대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 있다. 서상초등학교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이유다.



- 제23회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
(2019. 10. 25.~31.)
- ▶ 최고작품상
 - ▶ 최우수연기상(교육감상) 조조 학생
 - ▶ 지도교사상(교육장상) 권태형 교사

- 제27회 전국어린이연극잔치**(2019. 11. 26.~12. 1.)
- ▶ 금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 최우수 창작상 권태형 교사

역사에서 (愛書)

창원 구산중학교

작년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유행했다. 기성세대들에게 90년대생은 이해 안 되는 세대, 미지의 세계다. 그런데 2000년대생이라니. 신인류 같은 그들이 BTS나 EXO가 아닌 1900년대 빼앗긴 역사를 쟁취하며 살다 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소설을 썼다고 한다. 임지윤, 진승혜, 공민서, 박가영, 조예진. 2000년대생, '역사에서(愛書)' 동아리 학생들이 몹시 궁금했다.



사서 선생님이 그린 큰 그림

지난해 11월 20일 <독립운동의 속삭임>이란 책이 출간됐다. 작가들은 구산중학교 역사에서(愛書) 동아리 학생들로 4월부터 쓰기 시작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책을 낼 수 있다지만 중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주제로 쓴 책은 지역신문에서도 다들 만큼 이슈가 됐다. 의외로 작가인 학생들은 얼떨떨해했다.

“책까지 낼 줄은 몰랐죠.” **진승혜, 1학년**

“저희끼리 글만 쓰는 식으로 운영되고 축제 때나 동아리 마무리할 때 공책 같은 데 써서 전시할 줄 알았어요.” **공민서, 1학년**

4월 사서 박희정 선생님이 낸, 역사와 글을 사랑하는 역사에서(愛書) 동아리 모집 공고를 학생들 대부분은 ‘글쓰기’ 동아리로 알고 들어왔다. 첫 모임 날, “우리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 및 3·1 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았으니 독립운동을 주제로 글을 써보면 어떨까요?”라는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결사반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쓰고 싶은 주제라도 있었을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라고 솔직한 대답이 돌아왔다. 학생들과 글을 써서 책을 한 번 내보고 싶었던 선생님은 아이들이 주제 잡기를 제일 힘들어한다는 점을 감안해 아예 주제를 잡아주면 어떨까 생각했다.

“교과서로만 접하는 역사적 인물을 한 사람이라도 깊이 있게 알았으면 했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신념을 지키고 이겨냈던 걸 생각하며 학생들이 하나라도 배워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박희정, 사서·지도교사**

역사에서(愛書)가 되는 시간

‘독립운동가’라는 큰 주제는 정해졌고 각자 자신만의 독립운동을 선정했다.

“안중근 의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분이니까 자료수집이 쉽고 글쓰기도 되게 쉬웠다고 생각했어요. 쓰다 보니까 재판 부분만 다뤄서 많이 어려웠어요.” **임지윤, 2학년**

“원래도 시집 읽는 걸 좋아해요. 윤동주 시인을 하면 예쁜 말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동주 열사는 일본 유학 시절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밤이면 흙 위에 이름을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뭔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윤동주 시인으로 선택했어요.” **진승혜, 1학년**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머니’ 정정화 선생님이로 정했어요. 안중근 의사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공민서, 1학년**

“나라를 잃은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난로 같은 분이라고 최폐치카(난로)라는 별명을 가진 최재형 선생님이로 했습니다. 독립운동자금을 많이 조달해주셨어요. 안중근 의사의 거사 때 충도 최재형 선생님께서 마련해주신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알고 싶었고 업적이 기억에 남았어요.” **박가영, 1학년**

한 달에 한 번 동아리 모임을 할 때마다 인물 설정이나 내용 구성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글을 써 나갔다. ‘주제’라는 높은 산을 넘고 각자가 정한 인물에 빠져 열심히 써나갔지만 글쓰기는 쉽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은 8월쯤이 되자 매주 만나 읽고 쓰기를 반복했다. 각자 안중근, 윤동주, 정정화, 최재형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그 시대, 내가 안중근이었다면, 내가 정정화였다면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것 같았다. 다들 독립운동은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혹시 ‘이런 점은 나와 비슷하시네?’ 공통점은 없다는 말에 잠시 정적.

“감히 제가… 안중근 의사를…” **임지윤, 2학년**



독립운동의 속삭임

마감이 다가오자 학생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바꾸고 싶은 글도 많아지고, 욕심이 생겼다. 이 때문에 출간일이 예정보다 조금 미뤄졌다. 자신이 쓴 인물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으며 웃는 얼굴에서 긴 시간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출간된 책으로 자신의 문장을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 이 구절은 다들 기억하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딱 결말 지어야지 하고 생각해 둔 말인데. ‘하늘·바람·별·시’ 이건 내가 섬기었던 단어들이다. 하늘·바람·별·시, 그리고 너. 이건 내가 섬기는 단어들이다. 더 이상 별이 바람에 스치우지 않기를, 네가 소원했던 바람이었다. 더 이상 네 별이 바람에 스치우지 않기를, 이건 내가 소원하는 바람이다.” **진승혜, 1학년**

“정정화 선생님이 1931년 초 상해로 망명하면서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귀국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문장, 선생님의 굳은 결심이 좋아요.”

공민서, 1학년

역사에서(愛書)가 쓰아올린 작은 공

BTS와 만화책을 좋아하던 학생들이 한동안은 역사에 폭 빠져 있었다. 덕분에 책이 나왔고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주변 친구들도 또래가 낸 책에 관심을 보이면서 도서실 출입이 잦아졌다. 앞으로 역사에서(愛書)가 기대되는 이유다.



- <독립운동의 속삭임>
- 제1화 독립과 재판 임지윤
 - 제2화 하늘, 바람, 별, 시, 그리고 너 진승혜
 - 제3화 그녀의 위험한 도전 공민서
 - 제4화 일기장의 비밀 박가영
 - 제5화 독립운동가 김규식 조예진

역사에서(愛書)

• 엄마들의 수다 •

정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우리 사회의 핫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이라는 단어다. 논문 품앗이, 금수저 부모의 자녀 스펙 만들어 주기 등 입시 편법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으며 현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잇달았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공정한 입시 제도를 갖출 것인가.'라는 고민을 꺼내고 작년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 기존 30%의 비율이었던 정시를 4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적용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3학년도 대입부터다.



이수정 (44)

권민정 (45)

최은숙 (44)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정시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하고 있다.

정시 확대를 찬성하는 쪽은 정시 확대가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N수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편 주장은 정시 확대가 대입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시험 점수만으로 진로 결정을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다. 아마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바뀐 입시 정책으로 입시를 치를 학생들이 자녀들의 수능을 지켜보는 양육자들의 마음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정시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창원의 한 카페에 모여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

바뀌는 입시 정책, 어디까지 알고 있나?



- 권민정** 이번에 아이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입시 정보를 찾아보게 됐어요. 현재 대학 진학을 하려면 수시와 정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부르는 일명 '학종', 정시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 정도 알고 있어요.
- 이수정** 잘 접하기 힘든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 입시 설명회를 들은 이후에 입시 정책에 대해서 따로 찾아본 일이 없어요. 아직 아이가 중학생이라,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자세히 알아보려 했을 겁니다.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것도 관심 있는 부모만 알더라고요.
- 최은숙** 아이가 넷이라 얼마 전에 첫째 아이를 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삼 년도 지나지 않아 둘째 아이는 바뀐 입시 정책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워요. 둘째도 수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시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반갑지는 않죠. 게다가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는 '고교 학점제'는 외국처럼 원하는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는 것이잖아요. '고교 학점제'의 방향과 지금의 수능 정시 확대는 반대 방향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준비를 해야 할 판이예요.
- 권민정** 몇 년 전에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적응하려니까, 또 입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불안하죠. 처음이라 수혜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히 일부일 거로 생각해요. 선생님도, 학생도, 부모들도 이런 혼란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게 안타까워요.

#2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입시 공정성도 높아질까?



권민정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을 뽑고자 수시 확대를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편법을 이용한 부정 대학입학이 생겨났죠. 옛날 학력고사 시절에도 부정 대학입학자들은 늘 있었어요. 어떤 정책을 가져와도 악용하는 사람은 있을 거로 생각해요.

이수정 교육부에서 정시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사교육 관련 기업 주가가 폭등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특히 강남, 일명 8학군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도 하고요. 슝쓸했어요. 앞으로 정시가 확대되면 학생들은 재능과 특기를 살리기보다는 수능에 더 집중해야 할 뿐더러, 고득점에 연연해야 하니 점수에 대한 압박감은 더 커지겠죠.

최은숙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해 특목고, 과학고, 자사고 아이들의 학업 수준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정시가 확대되면 과연 공정성이 커질까요?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의 대학 선택 폭은 더 좁아질 게 뻔합니다. 결국 좋은 사교육을 받고, 유능한 입시 컨설팅을 받는 금수저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죠.

이수정 사회 구조가 너무 견고하게 위아래로 나뉘니까, 입시 준비 또한 빈부 격차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요. 차라리 정책을 오래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책이 자주 바뀌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도 뺏기고, 선생님들도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되니까 시간 낭비로 느껴져요.



#3

정시 확대가 지방 학생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은숙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입시 정보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요. 중소도시에서도 시와 외곽의 교육 수준이 차이 나는데 하물며 지방과 수도권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수도권은 학원에서 상담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요. 좋은 정보가 돈으로 환산되는 거죠. 하지만 지방에는 그런 정보조차 흐르지 않아요. 관심 있는 부모들이 끼리끼리만 알고 밖으로 알려주지 않고, 암암리에 정보가 교환되는 거죠.

이수정 문화 자체도 수도권과 지방이 5~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 고중에 가까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만 봐도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잖아요.

권민정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무색하죠. 논술, 면접 등을 준비해야 하는 정시가 확대되면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질 텐데 거기다 수시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면 수도권의 좋은 학군과 학원가로 사람들이 몰릴 것은 뻔합니다. 정시 확대는 오히려 서울 상류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방에서는 뭘 준비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전략적으로 수능을 지도할 수 있는 사교육이 부족한 것이 지방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4

앞으로 교육 정책에 바란다

최은숙 너무 빨리 입시제도가 바뀌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한 후에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어요.

권민정 가장 좋은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오로지 대학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시도 입시지만,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10대 시절을 생각하면 즐거웠다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었으면 해요.

이수정 10대라는 시간이 본인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환영했어요.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곧바로 교과목 성적에 신경 쓰고 시험을 치고받아야 하니 교육정책도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실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성장에 중점을 두는 교육 정책, 입시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1대 왕할머니 황재연
“98세 할머니는 고향 그 자체”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시집은 황 할머니는 무려 1922년생,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비롯한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몸소 살아오신 살아있는 역사이다. 그중에서도 80년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마을 그 집 그대로 이곳에서 살아오셨다. 농사에 바닷일까지 해야 했던 이곳에서의 삶이 어찌 고달프지 않았을까.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일본으로 돈 벌러 나간 남편을 대신해 묵묵히 집안을 지켜온 건 할머니였다. 그러니 손자 전홍표 씨에게 할머니는 ‘고향’ 그 자체이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참 많죠. 요 앞이 포도밭이었는데 여름방학이면 할머니 리어카에 포도 싣고 ‘포도 사세요 포도 사세요’ 하면서 동네 돌아다니는 기억도 있고요, 동네 입구 버스정류장에 서서 새벽장에서 할머니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곤 했죠. 할머니 기다린 것도 있고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기다린 것도 있고...” **전홍표**

장남이 낳은 첫 손자를 무척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다는 할머니,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취하던 시절 할머니가 오셔서 손수 밥해주시고 함께 잤던 기억도 생생하다는 전홍표 씨다.

마당 한쪽 자그마한 비닐하우스, 양쪽으로는 넓게 평상이 깔려 있다. 이곳 논밭에서 캐온 나물거리며 콩, 무, 시래기들을 식구들 먹이기 위해 부지런히 널어뒀을 어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의 어머니... 그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그려지는 공간 한쪽에 황재연 할머니는 늘 그렇듯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신다. 80년 부지런한 습관에 아직도 손을 놀리지 못하시는 듯, 작은 대접에 담긴 콩 두어 줌을 골라내고 또 골라내신다. 한겨울이지만 오롯이 햇살 받는 자리는 따사롭다. 할머니가 계신, 또 함께 어머니가 계신 이 공간은 늘 그렇게 따뜻하다. 손안에 움켜쥐었던 세상 속 고민과 욕심들이 스르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한껏 느슨해지고 싶은 그런 나른함... 모든 긴장이 무장해제되는 듯 편안해지는 품이다.

요즘은 조금씩 잊음이 잦아졌다는 왕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향해 손자 홍표 씨가 농을 던진다. “할매~ 내 누군지 아나?” “홍표 아이가.” “내 장가간 거 아나?” “지랄 안 하나?” 다 늙은 할매를 놀린다고 통까지 놓는 할머니. 그러자 손자 홍표 씨가 “고맙네~” 되레 인사를 건넨다.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자신을 기억해주시는 할머니가 고맙다는 홍표 씨다.

99세 황재연 할머니

4대 가족

나의 고향
진전면 이명마을은
인생이란 도화지의
첫 밑그림을
그리게 해준 곳

살다보면 문득문득 엄마 밥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의 끝, 괜히 서러운 마음 한편, 신파 드라마에 흠뻑여 온 저녁, ‘에휴 지친다. 삶이 왜 이렇노?’ 한숨 나는 순간...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하나 둘 높아질수록 엄마 밥이, 아니 엄마 품이 그리워지는 횃수는 자꾸만 더 늘어난다. 그래서일까? 고향 마을에서 4대가 함께 어울린다는 이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어쩐지 푸근하다. 백수를 바라보는 왕할머니부터 태어난 지 15개월 된 막내 증손까지 100년을 아우르는 가족의 힘이 느껴진다. 4대 가족 전홍표 씨 가족을 소개한다.



< 3대 손자 전홍표 의원 >

“나의 고향 진전면 이명마을은 인생이란 도화지의 첫 밑그림을 그리게 해준 곳”

일 많고 식구 많은 집안, 장남의 장손 홍표 씨는, 바쁜 부모님의 삶을 보며 자랐기에 일찍이 스스로 철이 들었다. 엄마가 귀찮지 않게 숙제나 준비물은 알아서 챙기고 엄마가 챙겨줘야 할 것들은 미리미리 말하는 습관이 저도 모르게 몸에 배었다. 엄마가 힘드시지 않게 미리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는 철이 일찍 든 아이였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취업할 때도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는 게 우선순위였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아들을 키운 건 할머니였고 그런 연유로 할머니에 대한 마음은 무척이나 애뜻하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 정신적 유산이죠. 근면 성실해야 된다. 남한테 인사 잘 해야 된다... 늘 말씀하셨죠.” 진전면 이명마을은 집성촌이라 모두들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할머니 자신이 잘못 말하거나,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붕괴된다는 걸 다 겪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남한테 먼저 베풀고, 누구 오시면 따뜻한 자리에서 밥 한 끼 먹고 가라 하시고... 그런 게 전인적인 모태가 됐죠.” **전홍표**

그에게 고향 이명마을은 ‘완전체’이다. 뒤로는 산, 앞으로는 바다와 강(진전천)이 있다.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큰 것들을 다 배우며 인생이란 도화지의 첫 밑그림을 그렸던 곳이다. “환경공학을 전공했던 이유도, 교육을 하게 된 꿈도 여기서 시작됐죠. 환경을 지켜야겠다 해서 공학도로서 지키는 방법을 공부했고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을 고민했죠.” 환경 관련 일을 하며 아이들에게 모심는 방법, 벼 베는 방법, 자연을 대하는 방법, 여기 사는 동식물이 어떤 게 있는지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는 홍표 씨. “시간은 걸려도 확실한 방법이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법과 제도가 있어야 빠르게 실질적으로 변화하겠다 싶어서, 2018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Family



< 4대 전영찬·다은 >

“100년을 넘어선 대화스킬... 위대한 유산”

홍표 씨의 아들 영찬이(서중 2)와 다은이(가포초등 5)에게는 할머니집 방문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지금도 한 달에 두어번은 오지만 ‘옛날엔 더 자주 왔었다’라고 말한다. 가족이 많아서 같이 놀 때라도 많고 삼촌들과 공 차고 같이 야구도 하면서 논다는 영찬이는 시골이라도 심심하지 않아서 좋단다. 특히 영찬이를 예뻐해주는 왕할머니의 특별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같은 또래 고종사촌과의 놀이부터 밤하늘의 별, 맑은 공기까지도 좋다는 딸 다은이는 언제나 긍정적인 할머니가 특히 더 좋단다.

어릴 땐, 다른 친구들에게 없는 소, 밭, 왕할머니에 엄청 많은 식구들까지...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다는 아이들. 할머니의 품에서, 왕할머니의 품에서 자연스럽게 의를 배우고 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큰 자산이다.

“사람을 만나면 배려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들 영찬이가 2005년생인데 1922년생을 이해하는 스킬을 가졌다는 건 100년의 스킬을 가진 거죠. 대화를 여는 방법이나 경험치를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다는 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전홍표

< 2대 어머니 김말란 여사 >

“식구들을 품어주는 큰 산”

홍표 씨의 어머니 김말란 여사(1954년생)는 집안 살림꾼이시다. 장남 홍표 씨가 장가갈 무렵 어머니는 뭐든 혼자서 척척 해왔던 아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셨단다. “내가 막내 시동생까지 다 장가보내고 눈을 딱 보니 니가 장가갈 때가 돼 있더라.”라고. 산골에서 시집과 비린 공기마저 낯선 곳에서 4남 2녀의 만머느리 역할을 해내신 분, 생을 고생이라 앓고 시고 힘겨움도 굳건히 버텨주신 어머니... 홍표 씨와 형제들에게 어머니는 무엇이든 언제나 품어주는 ‘큰 산’이다.

어찌 힘든 순간이 없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을까? 그럼에도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인연과 역경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포용력은 감히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어머니의 그 성정이 식구들을 먹여살리고 자식들을 키운 건 아닐까... 지금은 거동이 수월치만은 않은 왕할머니의 동반자로 곁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는 여전히 이 4대 가족의 대지이다. 우연하게 방문한 막내 딸 내외와 4명의 아이들까지 모여 왁자지껄하다. 그도 그럴 것이 홍표 씨 내외와 두 아이까지 더하면 모두 12명, 한마디씩만 거들어도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이제 15개월 된 막내 증손이 왕할머니와 눈을 맞춘다. 100년을 넘어선 눈맞춤이다. 이런 눈맞춤이 그 어디에서 가능할까. 어쩐지 기분이 좋으신 왕할머니를 보시고는 어머니 김말란 여사가 말씀하신다. “엄마,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좋냐?” 그러자 홍표 씨가 농을 건네듯 한마디 거든다. “누가 와서 좋노? 내가 와서 좋죠?” 그리고 “그래 홍표가 와서 좋다” 말하는 왕할머니께 홍표 씨가 전한다. “고맙소. 오늘 이름도 알아주고 고맙네~.” 와하하, 까르르~ 4대 가족 홍표 씨네 고향 집 거실 가득 온기가 든다.



경남의 정책 연구회 '경남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아이들도 모둠에서 서로 협력하여 배우듯이 교사들도 동료성을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 협력하여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남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는 현재 19개 지역연구회에서 500명 이상 회원이 매월 1회 이상 수업 임상을 중심으로 배움 중심 수업을 연구하는 초·중·고 교사연구회이다. 해마다 전국 세미나 참여, 전국 및 경남 운영진 워크숍, 수업컨설팅, 배움의 공동체 기초·심화·컨설턴트 과정 연수 등을 운영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해나가고 있다.



PART 1 연구회 선생님과의 인터뷰

Q1 연구회 조직 형태는?

경남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는 창원, 양산, 진해, 거창 등 지역연구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2월에 남해지역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가 새로 조직되어 총 19개의 지역 연구회가 있다.

Q2 연구회에서 하는 일은?

지역별 연구회는 한 달에 1회에서 3회까지 지역 상황에 따라 수업 임상과 수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구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천한 내용은 지역별 워크숍이나 경남 워크숍, 수업 축제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전국 운영진 연수나 국제 콘퍼런스 참석 등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서로 배우나가고 있다.

초등 연구회에서는 경남 초등 배움의 공동체 수업 세미나를 개최하여 13편의 수업을 나누었으며, 중등 연구회는 2017년부터 꾸준히 새 학기맞이 수업-평가 설계캠프를 교육청이 주최하고 연구회가 주관하고 있다.

특히 이 연수는 과목별로 이루어지며 소집단 활동으로 각자 본인의 한 학기 교육과정 재구성을 구상해보는 실습형 연수로 배움 중심 수업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Q3 경남교육청 정책 연구회로서 선생님의 구체적 실천은 무엇이 있나요?

경남교육청의 중요 정책인 배움 중심 수업과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실현에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선생님들의 실천이 별개의 물방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배움의 공동체 철학에서 강조하는 동료성을 바탕으로 한 수업 연구와 실천, 수업을 열고 아이들의 배움을 나누는 성찰 등의 주요 활동은 개인의 수업 혁신을 넘어 교실의 변화, 학교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Q4 연구회의 앞으로의 과제는?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 공유는 되어 있지만, 학생활동 수업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배움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 조각이 아닌 사고 활동, 탐구활동, 표현활동 등의 높은 수준의 학생활동 수업으로의 전환에 연구회의 힘을 쏟을 것이다. 더불어 동료 교사들과 함께 동료성을 구축하여 수업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문화 확산에 힘을 쏟을 것이다.





PART 2

연수 장소에서 만난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배움의 공동체 철학이 무엇일까?

어떻게 내 수업에 녹여낼까?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만나고 싶은 선생님들이 2020년 1월 9일과 10일 교육청에 모였다. 1월 8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과 수업의 실제' 2일 차 연수를 들여다본다.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진행하는 연수이다.

교육은
가르침보다
배우는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



1강.

관계를 통한 협력적 배움

중학교 2학년 '식의 계산' 수학 수업을 영상으로 본 후 연수생들끼리 사실과 배운 점을 나누고, 수업자 선생님(경북 내서중 김임곤)의 성찰 나누기 그리고 내서중학교 학생 자치 만들기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선생님의 수학 수업 영상 속 아이들은 소외되는 아이 없이 서로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있다. 교사는 정중하며 책상 눈높이에 맞추어 아이들을 돌본다. 영상 중간부터 아이들 입에서 연신 '아~ 알겠다.' '오케이'가 터져 나온다. 연역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수학을 귀납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도록 한 교사의 수업 디자인이 깔끔하다.

교육은 가르침보다 배우는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수업이었다.

2강.

배움의 공동체 책 나누기

15시간 연수 중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씩 잡혀 있다. 함께 읽을 책은 <손우정 교수가 전하는 희망의 교실 혁명 '배움의 공동체'>. 조용한 가운데 책을 읽고 밑줄 그으며 와닿았던 부분을 낭독하며 책을 나눈다.

'질 높은 배움과 평등한 배움'이라는 부분에서 배움의 공동체가 왜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라는지 이해가 되는 시간이다. 책의 구절을 이야기하지만 선생님들은 각자의 교육적 고민을 책을 매개로 나누고 깨달아간다. 연수장 한쪽에 나열된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의 제목만 읽어도 공부라 되는 듯하다. 침묵으로 가르치기.



3강.

5년 차 선생님의 배움의 공동체 실천기

게임과 재미를 추구하던 친구 같은 교사에게 배움의 중심에 학생들을 두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사 이야기다. 여전히 좌충우돌 배우고 있다는 봉명중 이대희 선생님의 자세가 사뭇 진지하다. 재구성한 영어 학습지로 선생님들의 토론 시간을 준다.

주제는 ❶ 학습지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것은? ❷ 학습지를 디자인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❸ 1년 차와 5년 차의 공개수업 비교하기. 목이 마른 듯 떨리던 선생님의 목소리는 한 시간이 지나자 여유롭고 차분하다. 학년, 교과와 벽을 넘어 연수 선생님들은 이미 영어 학습지를 보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잘 배울까 함께 토론하고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경험을 하고 있다.

다시 새해, 첫 주말에 열리는 전국 운영진 모임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교실 속에서 공교육의 희망을 찾는 동료들과의 만남에 설렌다. 이번엔 어떤 수업을 만나고 수업 속에서의 아이들의 배움을 어떻게 배울 것이며 동료에게서 어떤 배움을 이어 나갈 것인가.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나 가슴 깊은 곳이 진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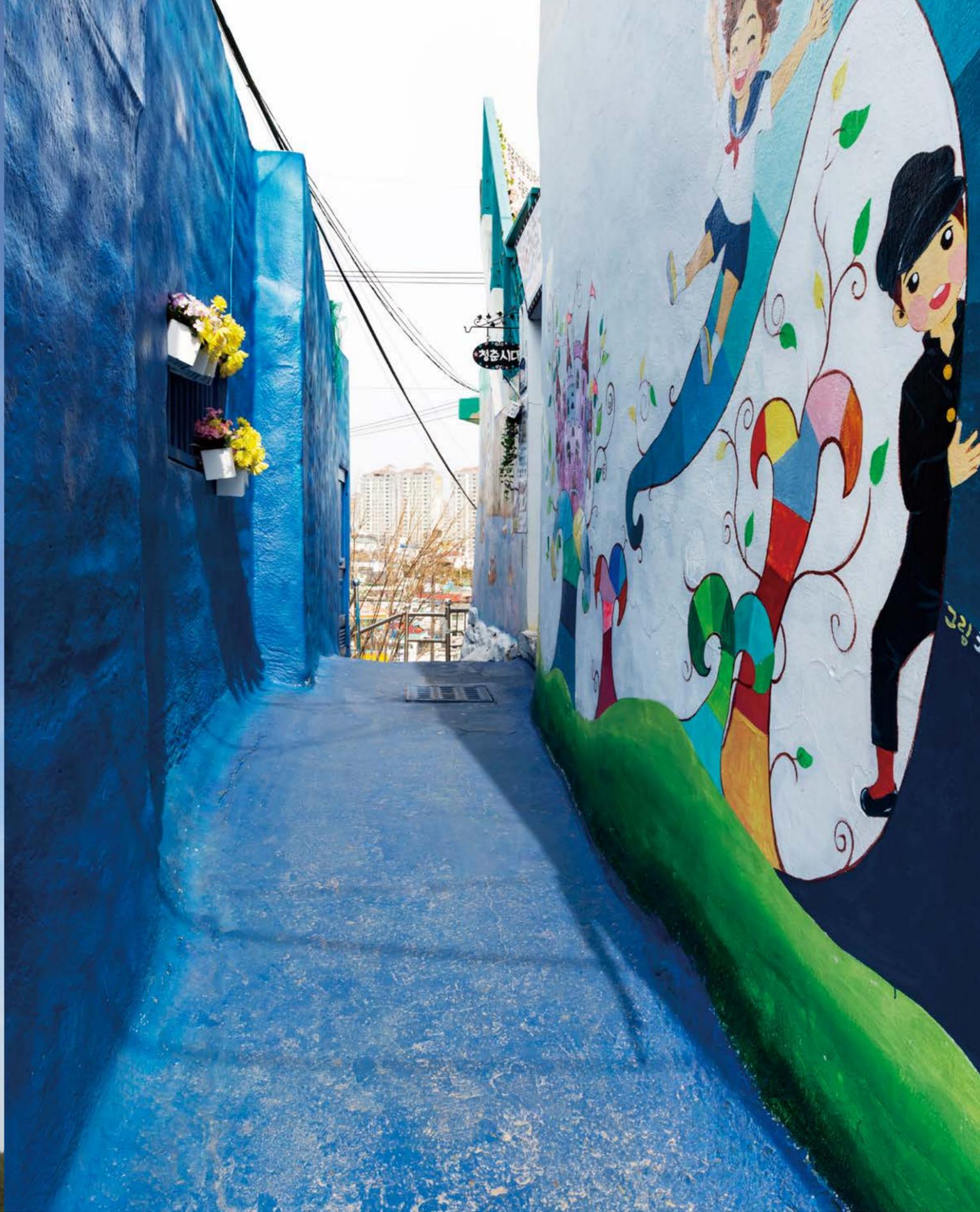




통영
TONGYEONG

〈이순신공원〉
〈동피랑〉

겨울에 떠나는 통영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젓빛 세상 끝에 만나는 선명한 푸른 빛의 바다, 그림같이 떠 있는 섬들, 하얀 뱃길을 내며 통통 달리는 작은 배. 그뿐인가. 칼바람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바다가 곧 삶의 터전'인 통영은 펄떡이는 활기와 생명력 강한 기운을 전해준다.



한때 '충무'라 불리었던 통영

통영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근거지가 되면서부터 역사 속에 떠올랐다.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고 그 줄임말로 '통영'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현재로 치면 해군사령부 격인 통제영은 1593년 이순신 초대 통제사 시절 한산도에 설치되었다가 몇 번의 이전을 거쳐 1604년 지금 자리에 들어섰다.

통제영은 그 뒤 1895년 고종이 전국 모든 군영을 폐지할 때까지 292년 동안 이어졌다. 통영은 한때 충무라 불리었는데 '충무'라는 지명 역시 장군의 시호 충무공에서 따온 이름임을 미루어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순신공원  경남 통영시 멘데해안길 205
 벽화마을 동피랑  경남 통영시 동피랑1길 6-18



이순신공원(옛 한산대첩기념공원)

통영시 정량동 망일봉 자락에 있는 '이순신공원(옛 한산대첩기념공원)'을 찾았다. 소설가 김훈은 그의 작품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그 한없는 단순성과 순결한 칼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붙였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다. 그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이순신 장군 동상은 뭔가 모를 명쾌함과 선명함을 선사하는 것 같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은 바다가 된 듯하다. 청동으로 만든 높이 17.3m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한산도 앞 바다를 바라보며 손짓을 하고 있다.

영화 <명량>에서도 언급된 '장수 된 자의 충(忠)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뜻을 펼친 이순신, 오로지 백성으로

향하는 충을 실천했던 장군의 낮지만 단호했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 앞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 소탕에 큰 역할을 했던 천자총통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다.

오르막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숲으로 가는 산책길과 바다로 내려가는 오솔길 나무 숲 사이에 서서 바라보는 풍경은 절경이다. 간이 모래밭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놀이터가 되고 어른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된다. 공원 중앙에는 정자(학익정)가 우뚝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앉아 학익정으로 적선 47척을 쳐부수고 12척을 나포한 한산도대첩이 펼쳐졌던 바다를 바라보며 올 한 해 저 너르고 평온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본다.



벽화마을 '동피랑'

통영을 찾았다면 벽화마을 '동피랑'을 지나치기는 어렵다. 통영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중앙시장 뒤쪽 언덕에 있는 마을 동피랑은 '동쪽 벼랑'이란 뜻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부터 볼거리가 넘친다. 제철 맞은 굴을 파는 상인들은 힘있는 목소리로 사람을 붙잡는다.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마다 강구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동피랑'은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 벽화로 유명한 곳이다. 동피랑 벽화전은 2007년 첫 회를 시작으로 틈틈이 새 단장을 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볼거리와 먹거리도 다양한 통영

겨울 바다와 통영의 상징을 담은 공원 등 비단 볼거리가 아니더라도 미식 여행지로 빼놓을 수 없다. 철마다 미식거리가 넘쳐나지만 겨울엔 물메기와 굴이 제철이다. 보드라운 살과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물메기와 씨알 굵은 싱싱한 굴을 맛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통영을 또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 준다. 이와 함께 중앙시장에 거리를 이루고 있는 통영꿀빵도 주전부리로 그만이다. '경주에 황남빵이 있고, 안홍(강원도 횡성군)에 찌빵이 있다면 통영엔 꿀빵이 있다.'는 말처럼 통영꿀빵은 견과류와 깨 등을 뿌리고 꿀이 발라진 겉 빵의 질감은 거칠지만 차지고, 안에 들어간 팔랑금은 부들부들 달콤하다. 원조 꿀빵에다 자색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빵과 유자를 사용했다는 유자빵, 또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커피빵까지 그 모습을 다양화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공기마저 스산해지면 발걸음이 빨라진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느끼는 안도감이란. 반갑게 맞이하는 가족이 있는 온기 가득한 우리 집. 누구나 집을 떠올리면 이러한 상상을 하지만 여기 집과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몇 편의 영화가 있다.

영화 <우리집>(감독 윤가은)의 두 소녀는 각기 다른 이유로 '우리집'을 지키려고 애쓴다. 부모의 잦은 다툼으로 불안한 하나.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 한 끼를 먹으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하나는 고군분투하지만 쉽지 않다. 유미는 잦은 이사가 싫다. 도배 일을 찾아 지방으로 다니는 부모님 때문에 유미는 어린 동생을 돌보며 집을 지키다 또다시 이사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횡방을 놓고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친절을 베풀다가도 무조건 피하며 어떻게든 지금 사는 집을 지키려 애쓴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어쩔 수 없이 슬픈 동화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감독 김성호)에도 '우리집'을 구해야 하는 지소가 주인공이다. 아빠가 사라진 날 집도 사라진 지소는 집만 구하면 아빠도 돌아오고 엄마랑 동생과 행복해지리라 믿고 '깜찍한' 범행을 기획한다.

또 다른 의미로 집과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있다. '6년 동안 한 집에서 눈을 맞추고 키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혈연과 양육의 시간이 뒤바뀐 상황에 놓인 두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제법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그것이다.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영화는 되레 부모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저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화해하고 부딪히고 이해한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부모도 자란다.

마음껏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집(감독 윤가은, 2019)

부모님의 말다툼을 불안한 눈빛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열두 살 하나(김나연). 싸우던 부모님이 가족 여행 이후 사이가 좋아졌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린 하나는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부모님 모두 바쁜 일상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룬다.

하나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며 함께 온 가족이 먹을 저녁을 차리지만 아무도 식탁에 앉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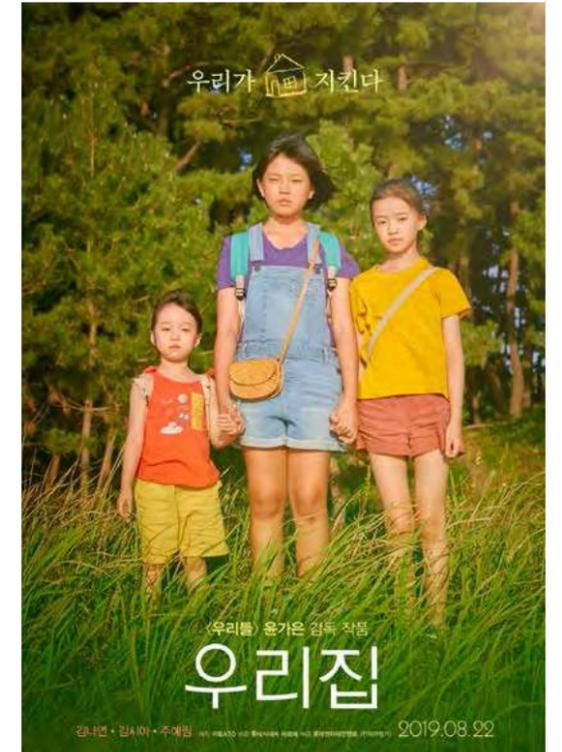
유미(김시아)의 부모님은 유미에게 동생을 부탁하고 멀리 일하러 떠났다. 엄마와 자주 통화하며 동생과 지내는 것이 익숙한 유미의 소원은 한집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외출하는 유미네 가족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하나는 우연히 유미와 친해지고 유미네 사정을 알게 된다.

돈 벌러 멀리 떠나 있지만 화목해 보이는 유미네를 하나는 부러워하고 번듯한 집에 사는 하나를 유미는 부러워한다.

“우리 집은 내가 지킬 거야. 물론 너희 집도!”

하나는 같이 마주 보고 밥을 먹으면 금방 화해할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복잡한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또다시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상의조차 하지 않는 엄마 때문에 유미는 속상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상, 어른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고군분투를 섬세하게 그려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감독 김성호, 2014)



아빠가 사라지고 집도 사라졌다. 지소(이레)는 동생 지석(홍은택)이랑 엄마(강혜정)랑 함께 미니 승합차에서 한 달째 생활하고 있다. 딱 1주일만 있다가 이사 간다는 엄마의 말을 더는 믿을 수 없다. 지소는 우연히 부동산 소개로 앞에 붙어 있는 평당 500만 원짜리 집과, 없어진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전단을 보게 된다. 평당 500만 원짜리 집을 구하려고 지소는 친구 채량(이지원), 동생과 함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한다. '개를 훔친다 → 전단을 발견한다 → 개를 데려다 준다 → 돈을 받는다 → 마당 있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훔칠 개를 물색하던 지소는 레스토랑 마르셀의 주인인 노부인(김혜자)의 개 '월리'를 목표로 정한다. 집을 잃은 가족은 매일 밤, 씻을 곳과 견인되지 않고 잘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돈은 많으나 가족이 떠나버린 노부인은 사람을 믿지 못한다. 차라리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에 의지한다. 집도 가족도 없는 노숙자 대포(최민수)는 남루한 현실 때문에 가족들 앞에 나서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저마다 집을 매개로 슬픈 사연을 가진 인물들을 통해 영화는 가난과 실업, 오해 때문에 해체된 가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눈물 대신 아이들의 상상력을 보였고, 신파 대신 희망으로 곳곳이 현실을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며 위로를 건넨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2013)

자신을 닮은 똑똑한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료타(후쿠야마 마사하루)는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6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고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것. 그리고 만난 친아들과 그의 가족. 시골에서 허름한 전파상을 운영하는 유다이(릴리 프랭키)의 가족이 료타의 눈에는 경제적으로도, 교양이나 문화의 측면에서도 그저 한심해 보인다.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하지만 유다이는 누구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몸으로 놀아주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아빠다.

사실 료타는 그렇게 친절한 아빠는 아니었다. 피아노 콩쿠르에서 자신보다 더 잘하는 아이에게 박수를 치는 아들을 보고 '넌 분하지도 않니?'라고 묻던 그였다. 부모도 부모지만 갑작스레 낯선 아저씨와 아줌마를 엄마 아빠로 불러야 하는 아이들 또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병원 측의 제안대로 주말마다 서로 아이를 바꿔 지내는 시간이 쌓이면 서 상황은 료타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료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친자의 가족들을 만나고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일인지 절절히 깨닫는다. "아버지란 일도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죠."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일까. 함께 보낸 시간이 만든 관계일까? 영화는 끝까지 덩덤하지만 긴 여운을 남긴다.





엄마가 잘 해야, 아이가 안전하게 자란다!

기고 박지은(경남 녹색어머니연합회장)



‘안전’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사고나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없는 상태로
‘위험’과 상반되는 뜻

6년째, 아들과 아침 데이트

5년 전, 이제 막 몸무게 24kg이 된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등교를 했다.

우리 학교는 아파트를 끼고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기에 스쿨존이 학교 사방을 다 두르고 있어 웬지 다른 곳보다는 아이들이 등교하기에 안전한 환경으로 보였었다. 하지만 외동아들을 입학시키는 엄마는 아이가 혼자 등교하도록 손을 놔야 했지만 결국 그 손을 못 놓고, 지금까지 매일 학교까지 아들과 아침 데이트를 하며 등교를 했고, 그게 이젠 6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처음엔 아들도 놓지 않으려 꼬옥 잡던 손이 이제는 제법 크기도 나랑 비슷해지고, 친구가 지나가면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놓고 친구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커감에 뿌듯함과 서운함이 같이 들지만, 대학 전공에서 배웠던 아동간호와 정신간호를 되새기며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아들이 커감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엄마이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도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양육에 있어 1순위는 ‘안전’

그런데 그런 예쁜 아들이 커갈수록, 세상에 내어 보여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는 걱정이 많아진다. 바로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커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다.

안전(安全)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사고나 재해가 생기거나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며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사고나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없는 상태로 위험과 상반되는 뜻으로 사용된다.

안전한 먹거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전 수칙, 안전한 스쿨존, 안전한 놀이 등등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는 늘 안전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똑똑한 먹거리, 현명한 스쿨존이라는 수식어보다 안전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엄마들의 마음에 더 와 닿는 걸 보면 양육에 있어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그럼 이런 안전은 누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누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가. 특히 지난 5년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통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학교의 교통 환경을 내가 직접 보아 왔기에 스쿨존의 교통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사고가 났던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슈화되고 법제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법제화라는 것이 사고가 나고 나서야 만들어진 것이고, 사고가 내 아이에게 안 나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번쯤은 괜찮아라며 우리가 눈감았던 것들을 꾸준히 실천해보자.



부모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의 내일’

내 아이의 등굣길을 같이 걸어가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위험한 차량이나 환경을 유심히 보자. 그냥 지나가던 길도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또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위험성이 보인다면 지자체나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아이에게 엄마가 이런 것도 널 위해 했다 자랑도 좀 하자.

다음으로는 학교 정문에서, 스쿨존에서 엄마가 먼저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하지 말자. 누구나 알 듯이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불법 주정차나 과속은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다. 내 아이만 생각하고 불법 주정차한 엄마들의 차량에 남의 아이가 다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학교 앞의 하굿길 차량은 학원차이거나 아이 픽업을 위해 출동한 부모의 차이다. 나로 인해 내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구들까지 위협해진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교통안전 교육을 수시로 하자. 아이들은 뛰고 싶고, 움직이는 시야가 좁은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것이 조절이 되고 넓어지려면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내일은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내가 어른이 되어가며 잠깐 잊고 살았던 운전습관과 내 모습을 오늘날만큼이라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나는 오늘 안전 운전을 하였는가. 나에게 안전한 운전이 아닌 타인에게 안전한 운전을 하였는가.



BOOK 다독다독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연구회 추천도서

□ 교육리더가 읽으면 좋은 책



태양 아래 새로운 명언은 있다

윤민 엮고 씀 / 마름돌 / 2019 / 311쪽

상식이 춤을 추면 유머가 되고, 유머가 춤을 추면 삶이 즐거워진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이 가득한 명언들에 유머와 재치를 가미해 읽는 재미가 톡톡 튀는 책이다. 총 121개의 명언에 관해 쓰면서 저명한 사람들의 또 다른 명언을 인용하고 요즘 SNS와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작자 미상의 짧은 말들도 풍부하게 실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작은 것에서 큰 배움을 얻는다. 그들은 또한 유머를 삶의 필수품으로 휴대하고 다닌다. 상식을 알아야 유머를 안다. 이 책 곳곳에 있는 유머는 곧 넉넉한 상식과 지혜이다. 이 책은 무료할 땐 웃기고 답답할 땐 참신한 속 깊은 친구로 다가올 것이다.

<책 속 한 구절> 우리는 마크 트웨인과 윌 로저스의 재치 있는 유머가 우리 삶에 미친 긍정적 영향 덕분에 세상이 더욱 살기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무 바쁘게 지내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벌고, 너무 열심히 사느라 조용히 미소 지으며 실 여유조차 잃어버리지는 말자. (189쪽)

□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내일 말할 진실

정은숙 지음 / 창비 / 2019 / 233쪽

불가해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작은 목소리들

누군가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오직 나의 증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덕적으로는 쉬운 물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물음이다. 책에는 표제작 '내일 말할 진실'을 포함하여 7가지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스쿨 미투, 가족의 상실, 진로 문제, 학교 폭력 등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든 일을 겪으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글을 읽는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줄 것이다. 주인공들과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며 정의와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

<책 속 한 구절> 나는 아직도 불가해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불행했던 여제와 불확실한 내일 사이에서 힘들고 아픈 '오늘'을 곳곳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231쪽)

6만 시간

박현숙 지음 / 특별한서재 / 2019 / 238쪽

'6만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6만 시간'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끈다. 전작 '구미호 식당'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던 작가가 이번에는 오롯이 청소년들이 보내는 일상의 시간에 집중한다. 열세 살부터 열아홉 살까지의 청소년기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6만 시간이 된다고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탐색하는 시간, 이 6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각자의 미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치열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6만 시간'을 응원한다. 한 번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계절을 만끽하길...

<책 속 한 구절> "네 나이 때는 네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이야. 그걸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는 거지." (228쪽)

□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가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옥 글, 주성희 그림 / 내일을여는책 / 2019 / 139쪽

무책임한 가짜 뉴스, 이대로 괜찮을까요?

2008년, 아프리카TV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1인 방송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증 없이 생산된 콘텐츠들로 인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주디의 이야기를 통해 가짜 뉴스가 어떻게 퍼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비판적인 자세로 미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책 속 한 구절> "슬쩍 작은 거짓말을 뉴스에 끼워서 전하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것에 대해 큰 책임감도 느끼지도 않았어. 그런데 살짝 섞은 가짜 이야기에 점점 이야기가 보태져 진짜처럼 둔갑하더라고." (124쪽)

□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자코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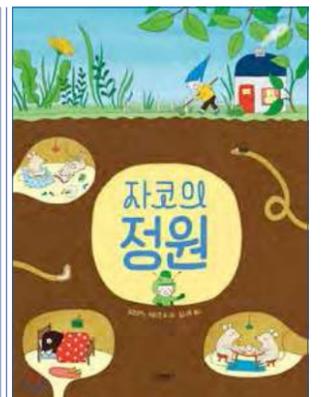
마리안느 뒤비크 글·그림, 임나무 옮김 / 고래벳속 / 2019 / 32쪽

정원에 떨어진 씨앗 한 알이 가져온 선물

우리의 삶에는 종종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일로 삶이 요동치는 일이 생기겠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숨겨진 선물들을 찾을 수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한다. 책장을 넘길수록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하면서 바뀌는 정원의 풍경이 흥미롭다. 게다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 속에서 동물의 서식지, 식물의 생장과 같은 과학적 지식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그림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책 속 한 구절> 정원의 주민들은 자코의 말을 귀담아들었어요. 그들은 식물의 좋은 점을 누리기로 했어요. 모두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굉장히 행복해졌지요. (26쪽)

□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토박이말바라기와 함께하는

토박이말 나들이



토박이말이란?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써 오는 말이나 그 말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말. 참우리말,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함.

들봄달(2월)에 알고 쓰면 좋을 토박이말

새해 해돋이를 보며 여러 가지 다짐을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었습니다. 돌림고뿔¹⁾ 때문에 애를 먹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겨울 놀이를 마음껏 즐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겨울의 끝자락이자 봄으로 들어서는 새로운 달이기에 2월은 들봄달²⁾이라 할 만합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곳에서는 눈석임³⁾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노란 꽃을 피우는 눈석임꽃⁴⁾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음 사이에서도 볼 수 있으니 얼음새꽃⁵⁾이라고도 하는 그 꽃을 보셨다면 봄이 오고 있다는 기별을 들으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요맘때면 배곳⁶⁾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침보람⁷⁾을 주며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 큰 손뼉을 쳐 주곤 합니다. 어김없이 바뀌는 철과 같이 겨울이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봄이 오듯이 그들의 헤어짐과 마침에 이어지는 새로운 만남과 비릇에 가슴 뛰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훌쩍 자란 아이들을 보며 삶의 보람⁸⁾을 느끼기도 하겠지요.

어느새 우리들 곁으로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게 해 주는 봄까지꽃⁹⁾이 피고 난 뒤에 꽃바람¹⁰⁾이 불고 꽃샘추위¹¹⁾가 우리를 괴롭힐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는 봄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느끼며 포근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1) 돌림고뿔 : '독감'을 다듬은 말

2) 들봄달 : '2월'을 다듬은 말

3) 눈석임 :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 스러짐

4) 눈석임꽃 : '복수초'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 (눈석임 속에서 꽃이 핀다고)

5) 얼음새꽃 : '복수초'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 (얼음 사이에서도 꽃이 핀다고)

6) 배곳 : '학교'를 다듬은 말

7) 마침보람 : '졸업장'을 다듬은 말

8) 보람 :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열매나 그때 드는 좋은 느낌

9) 봄까지꽃 : 봄까지만 피는 꽃이라고 이렇게 부름. '봄까지꽃'이라고도 함

10) 꽃바람 : 꽃이 필 무렵에 부는 봄바람

11) 꽃샘추위 :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의 추위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듯한 추위)

(사)토박이말바라기 제공

새로운 변화에 공감을 더하다!

2020 찾아가는 경남교육

<2020년 달라지는 경남교육 정책> 2020년 경남교육 설명회는 경남교육의 주요 정책과 정책 비전, 달라지는 경남교육을 교육공동체에게 알리는 행사로 그동안 교육기관 근무자와 학교 관리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창원에서 1회만 열었는데요. 올해는 도내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 대상을 확대하고, 창원, 김해, 진주, 통영에서 설명회를 열어 2,139명이 함께하였습니다. 경남교육 설명회에서 밝힌 경남교육의 정책 중 달라지는 경남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Q1

2020년에 유아중심·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 되면 유치원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어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입니다. 이제까지 유아교육이 초등학교 준비교육을 위한 학습과 구조화된 놀이학습이었다면, 2020년 3월부터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들의 놀이활동 중심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유아들의 주체적인 놀이중심으로 자유놀이와 바깥놀이 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운영하게 됩니다. 유아들은 주제적 놀이를 통해 다양하게 사고하고 양보와 배려, 사회성과 도덕성을 키우게 됩니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놀이가 더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은 유아들의 안전한 시설과 다양한 놀이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유아의 자발적 활동으로서의 놀이는 주변 세계와 관련된 지식·기능·태도 등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따라 유아들은 놀이에 대한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과 창의성을 신장하게 되어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Q2

기초학력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학습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따뜻한 학습동행'으로 3단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임교사가 수업으로 학력에 대한 책임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학교가 학습더듬의 요인에 따라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며 마지막 단계는 교육지원청에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으로 기초학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학습더듬: 기초학력이 낮음을 뜻하나 발전 가능성을 중요시하여 사용되는 용어)

기초학력은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탄탄히 다져야 하기 때문에 「초등 한셈집중학년제」를 운영하여 한글 해득과 기초수학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초등 한셈집중학년제'는 초등 1, 2학년에서 한글을 온전하게 해득하고, 기초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의 기초 능력을 갖추도록 초등 저학년의 읽기, 쓰기, 셈하기를 집중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초등 1~3학년 읽기 곤란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읽기 오름 어깨동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수업 내 한글·기초수학 학습더듬 지원을 위해 국어·수학 교과 내 협력교사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력교사: 1수업 2교사제)

학교 내 다중지원팀은 학습문제, 정서·행동 문제, 다문화·탈북학생, 돌봄 결여 등 학습 더듬의 복합요인을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두드림학교를 초등학교 55%, 중학교 100%, 일반고 50%까지 확대 운영하여 기초학력 단위학교 책임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Q3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학교 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2020년 경남의 전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년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은 주로 오전에는 교과수업을,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합니다. 교과수업은 토의·토론수업, 문제해결수업, 융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해 학생의 자발적 배움과 흥미를 촉진하고, 수시 형성평가 등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의 4영역을 통하여 학생 자신의 소질을 키우고 꿈과 미래에 대해 탐색해보도록 합니다. 내실 있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교사 대상 연수와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학교 교육과정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Q4

2020년 9월에 개관하는 경남독서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경남독서학교는 2019년 폐교된 합천 송산초등학교(대지 1만8,886㎡, 연면적 2,366㎡)를 활용한 곳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독서와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독서문화공간입니다. 경남 최초의 독서 전문교육과 독서캠프장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독서 힐링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과 상처받은 학생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힐링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인격 함양과 인성교육 등 가족 단위의 독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자연 속 마음 치유 캠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 본관동은 '그림책카페', '작가 방', '기록엔낙서방', '시앤음악방' 등 다양한 주제의 특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야외공간은 방갈로, 캠핑 데크, 야외공연장 등으로 자연이 놀이터가 되는 힐링 공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경남독서학교는 서부권역의 폐교를 활용한 창의적 모델을 제시하여 경남교육이 지향하는 미래교육과 독서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Q5

교육인권경영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인권과 관련한 경남교육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올해 3월에 개관하는 '교육인권경영센터'는 교육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권침해 사안 등으로 곤란을 겪는 교육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심각한 경우 해당 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인권'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로 모든 교육활동과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교육인권경영'이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인권경영'을 통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지식 전달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 '존중', '연대'의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차 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공동체 인권증진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6

**2020년부터 교육혁신추진단이 추진하는
공간혁신 사업은 무엇인가요?**

학교공간혁신은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존 학교 공간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공급자 위주의 공간이었다면, 학교공간혁신사업은 학생과 교사,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여 학교의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설계와 공간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심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간혁신사업은 학교단위 사업과 영역단위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학교단위 사업은 신축, 노후시설 학교의 개축, 전면 리모델링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영역단위 사업은 일반교실, 복도, 놀이터 등 학교의 일부 공간을 대상으로 공간혁신을 추진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20년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용자 중심의 교육활동과 생활공간으로서 균형 잡힌 다양한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간혁신사업 영역별 주요 내용

사업명	내용
공간수업프로젝트	교육과정 연계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간 주권 의식 제고
미래형 혁신학교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심 공간 조성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일부 공간)
무한상상실 조성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영어놀이터 조성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을 위한 편안한 학습 공간 조성
예술교육 공간혁신	예술경험 일상화를 위한 예술 공간 조성
학습공간 재구조화	미래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심과 휴식공간 조성	조화로운 삶의 공간으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외부 학습·놀이공간 조성	학습공간으로 외부환경 재구조화

Q7

**의령군에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설립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며 어떤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미래교육테마파크는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남의 미래교육 핵심기관으로 각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757번지 일대에 2020년 1월 건축설계,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시범 운영 후 7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은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있으며 지난해 ‘미래교육콘텐츠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였고,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엘지, 카이 등 국내외 기업의 참여 방식을 두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미래교육, 미래학교, 미래교실 전시 체험장으로 디지로그 놀이터, 미래교육모델 전시관 등 6개 대표 영역으로 운영됩니다. 경남의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교실 30여 실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량기반 융합주제 배움 교실을 운영합니다. 미래교육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사·학부모·도민 대상 연수를 지원하며 다양한 미래교육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 청년세어하우스 등장

글·사진 최석철 편집장

세어하우스 아닌 공유하우스로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196번길에 들어서면 새집처럼 단장한 2층 주택이 눈에 들어온다. 경남도가 마련한 시가 5억 원대의 청년세어하우스 1호이다.

빠르면 3월 말부터 청년들이 거주할 공유 주택이다. 공간만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생 주택(co-living)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창원의 청년세어하우스는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과 경남개발공사의 합작품이다.

실소유주인 경남개발공사의 도움을 받아 리모델링이 한창인 현장을 미리 둘러봤다.

1층에는 남자, 2층에는 여자로 구분했다. 1층에는 공용 공간과 거실, 욕실, 주방과 1인실 방이 2개 있다. 2층은

방 4개와 주방, 욕실, 출입문이 2개씩 등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는 구조로 꾸며졌다.

경남 청년세어하우스 6명 입주

1차 입주자는 6명으로 시작한다. 전출입이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예비 입주자도 최대 18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1월 말 현재 예비입주자는 10명 안팎이다.

입주자 공고를 맡았던 경남개발공사는 신청 자격으로 정부의 청년행복주택 기준을 적용했다. 청년세어하우스에는 경남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취업준비생과 청년, 사회초년생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사용료를 낸다. 월 사용료는 전용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4등급이다. 다만 외부에 청소 등을 위탁한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도 청년세어하우스의 임대비는 시세의 절반 정도이다.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 사용료 방식은 최근 젊은 층의 주택 소유 형태를 반영했다.

그런데 대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 졸업 2년이 지난 대졸 및 고졸 취업준비생이나, 직장 생활 5년차 이내의 청년 그리고 예술인으로 제한했다. 부모의 재력과 신청자의 재산도 살펴보는 등 실수요자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청자는 모두 13명으로 예상을 밑돌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니설문조사 결과 세어하우스의 필요성은 확인됐다. 의식주에서 집의 비중이 가장 크고, 짙 비용과 세어하우스에 대한 로망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또래 청년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세어하우스를 계속 늘려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의견을 고려해 입주 규정과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 '청년특별도' 청년세어하우스로 시작

경남도와 유사한 형태의 청년세어하우스는 전국에 3가지 유형이 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2인 1실 기준으로 대학생까지 포함한다. 2년 단위로 최대 6년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0만~20만 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38만 원, 관리비 5만 원에 6개월치 공과금을 선납 예치금으로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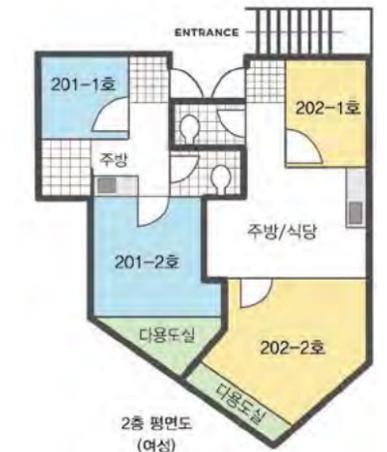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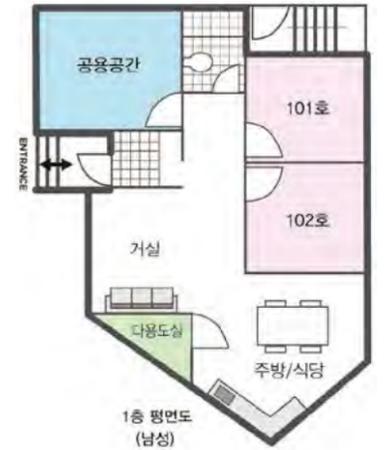
'아이좋아 경남교육'은 경남도청의 '경남공감'과 기사교류를 합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으시면 QR코드를 통해 접속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추가 서비스가 특징이다. 취약 계층 입주자에게 월 10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 지원과 취업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2020 경남도청의 3대 핵심과제는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다. 청년 세어하우스는 청년특별도 조성의 일부분이다.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도청의 다양한 변화(관계기사 13면)가 이미 시작됐다.

경남도는 "경남 청년세어하우스 1호 프로젝트가 도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문**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인터뷰



**의장 취임 이후 온전한 1년을 보낸
지난해였습니다.**

2019년 의정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19년은 도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남도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현장소통간담회 개최,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도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생활정치를 통해 침체된 경남경제의 재도약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조례 등 177건의 조례 제·개정과 39명 172건의 도정질문, 124명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충신했습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회기운영을 기존 118일에서 128일로 늘리고, 5개 특별위원회와 12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현장을 직접 찾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생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 행동·윤리강령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간 상설화하여 의원들의 예산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 청사 로비에 시니어 카페를 만들어 도민 휴식 장소로 제공하고, 회의실을 개방해 도민이 쉽게 의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의정 활동 중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어떤 점일까요?**

가장 큰 성과라면, 악성 또는 해묵은 민원 해결을 위해 ‘도민공감 현장소통 간담회’를 6월 고용위기 지역인 고성군과 10월 조선업 불황을 겪고 있는 거제시에서 개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담당과 미디어홍보담당을 신설하고 예산분석 강화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대폭 강화했으며 그 결과 입법활동,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그 어느 의회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속도감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제 양적으로 늘어난 의정활동에 더해 올해는,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신설 등 조직을 좀 더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2020년, 경남교육에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박종훈 교육감이 되고 나서 경남 교육이 많이 변했습니다. 연극 학교나 영화학교, 음악학교, 예술학교와 같은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체능 분야에 특화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지역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업 모델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거든요. 경남도교육청의 2020년 역점 과제가 수업 혁신인만큼, 앞으로 도와 교육청이 함께 수업 혁신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남도의회 의장으로서 각오가 있다면?

앞으로 제 임기가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정책과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도민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고,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경남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정뉴스

1

제3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1차~제2차 교육위원회 개최

2020년 본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심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1월 15일(수) 개최하여 경상남도교육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1월 16일(목)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3건은 심사 보류,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



2

제3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1차~제2차 본회의 개최

5분 자유발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제369회 임시회가 1.14.(화) ~ 1.20.(월) 까지 7일간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감 신년인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였다.



독자 참여 코너 안내

'아이좋아 경남교육'에서는 독자와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자 독자 참여 및 제보 코너를 안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기한 매달 5일까지

제출방법 경남교육청 홍보담당관 이메일로 보내기

✉ gne1@korea.kr

연락받을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 기재

제출형식 형식 제한 없으며 관련 사진 자료 제출

문의전화 ☎ 055)278-1783

독자 참여 및 제보 코너

<처음>

누구에게나 설레고 긴장되던 처음은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경남교육의 [처음]을 담은 코너

<경남교육을 OO하게 만드는 사람>

경남교육을 건강하게, 즐겁게, 지혜롭게, 안전하게, OO하게 만들어가는 각 분야 베테랑들의 이야기

<내 꿈을 쫓아>

나만의 특별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

<내가 만드는 경남교육사전>

경남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경남도민들과 함께 경남교육사전을 만들어가는 코너



'아이좋아 경남교육'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www.gne.go.kr

경남교육홍보관

매거진 신청/해지(모바일 신청가능)

발행시기 월간

구독료 무료

문의 홍보담당관 055-278-1783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을 검색

앱 다운로드

앱은 매거진 발행일 기준
일주일 뒤부터 서비스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by 15th February 2020.

2020.2.15.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부터 가능
To apply and register for overseas voting, voters must be 18 years and above (born before 16th April 2002).



신고·신청 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Through post / email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 중 6일 이내)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Duration of 5 days)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Apply and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참고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details and further information

①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두근두근 새 학기 준비하기

독서로 마음 근육 기르기



따뜻하고 달콤한 겨울 간식 먹기



겨울방학

즐겁게 보내는 법

가족과 여행은 어때?



겨울철 레포트 즐기기



좋아하는 콘텐츠 정주행!

나만의 취미 활동하기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 키우기

스마트폰 대신 친구와 추억 쌓기

적당한 늦잠은 오케이!

